

목포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최하위...광주도 낮은 수준

신안군 79.1% 전남서 가장 높아 광주지역, 광산구 최고 동구 최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목포시의 고용률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고용률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목포시 고용률은 59.5%로 전남 22개 시군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동두천시(57.6%), 경산시(58.8%), 군산시(59.4%) 등을 제외하면 목포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조적으로 신안군의 고용률은 79.1%로 전남에서는 가장 높았고, 전국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률 상위지역은 규모가 작은 군 단위, 하위지역은 시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 인구 연령층의 다양성 등이 높은 도시일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고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는 전남 5대 도시로, 규모가 큰 도시인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역보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신안군 등 농어촌지역은 대부분의 산업이 농림어업에 기반하고 있고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

률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기준 목포시 고용률은 30~49세(78.8%), 50~64세(73.0%) 등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15~29세(35.4%), 65세 이상(36.9%) 등은 낮았다. 반면 신안군은 15~29세(65.6%), 30~49세(90.6%), 50~64세(88.5%), 65세 이상(70.3%) 등 전 연령층에서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목포와 함께 전남 5대 도시로 분류되는 여수(64.7%), 순천(62.5%), 나주(67.7%), 광양(67.9%) 등은 시 단위인만큼, 여전히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역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수와 광양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로 인해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천과 목포는 다른 5대 도시보다 고용률이 비교적 낮는데, 15~24세 학생인구비중이 높아 경제활동참여율이 낮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중 광산구가 62.7%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 남구(60.5%)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광주에서 가장 고용률이 낮았던 지역은 동구(58.1%)였다. 15~29세 고용률을 보면 광주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자치구는 서구(40.5%)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 특·광역시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담양대치아동센터학생들, 소녀상 찾아 길원옥 할머니 추모 담양대치아동센터학생들이 최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고자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거부권 행사

광주시에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의회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21일 시의회에 재의의 요구안을 보낼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분회회에서 총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뉘 10일 이내에 분회회의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시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 간호사 국시 합격자 10명 중 2명 '남성'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남성 간호사가 늘면서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4만명을 돌파했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429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2만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로써 남자 간호사는 총 4만305명으로 늘어나 남

자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56만여명)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섰다. 남자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으나, 당시 여성에게만 간호사 면허를 줬기 때문에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명태균 측 "김건희, 김영선에 '김상민 도와주면 장관' 제안"

김영선, 김 여사와 세차레 통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전화해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측 남상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께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문제를 논의한 뒤 연락해 이같이 말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전달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 연락을 받은 김 전 의원은 분노하며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

람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 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더니. 나는 뺄도 없나"라고 말했다고 명씨 측은 전했다.

김해는 김 여사가 작년 2월 18일 김 전 의원에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 등을 수사 중인데, 당일 통화에서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일 밤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명씨 측은 앞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2023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신분으로 의창 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한편 명씨 측은 지난해 3월 1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과 칠불사에서 만나 김 여사의 연락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 전 의원이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휴대전화에 김 여사, 국민의힘 윤재욱 당시 원내대표·이철규 의원, 장동혁 의원의 녹취 파일을 저장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전 의원과 이 의원 간 통화는 명씨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재욱·이철규·장동혁 의원은 구명 활동의 대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랬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며칠째 변호인을 통해 허황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문광부, 올해 첫 숙박세일 페스타...할인권 30만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국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여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봄(3월), 여름(6월), 가

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이 배포될 예정이다.

1차로는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이 배포된다.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가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오는 28일부

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이,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권권이 각각 지원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우에이텍(‘갑’)과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을’)는 2025년 02월 21일 개최한 각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 합병 하여 그 권리의무를 일체로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집권자께서는 같은 기간까지 을의 분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갑" 주식회사 대우에이텍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대표이사 권의경
"을"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6, 2층(소촌동)
대표이사 권의경

73년을 밝혀온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報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알 신 571-7858 • 오 차 266-7001
• 동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흥 222-9054
• 총 청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심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영 603-0311
• 화 청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